

##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 , 과연 성경적인가? (2)

- 읽을 말씀 롬 2: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 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로마서 3장 이후에 믿음만 강조한 이유와 믿음 외에도 구원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 (3) 오직 믿음이 아니라면 왜 로마서 3장 이후 믿음만 강조했는가?

그 이유는 믿음의 독보적인 기능과 역할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용서가 모두 필요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 이하뿐 아니라 곳곳에서 칭의를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2장 이후에 회개가 나오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며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직 믿음이나? 회개와 믿음이나?’ 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냐?’ 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줄곧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맞다면, 왜 회개는 로마서 2장 한 장에서만 다루었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초대 교회 때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는 것은 기본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교인의 다수는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세례 요한(마 3:2), 예수님(마 4:17), 열두 사도(막 6:12, 행 2:38-39), 심지어 바울까지도 연이어 회개를 외쳤습니다(행 17:30). 놀랍게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습니다(행 20:21). 회개와 믿음은 초대 교회의

가장 초보적인 교리였고(히 6:1),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젓”에 비유했습니다(5:12-13). 기독교인이라면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어떤 분들은 “믿음도 젓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 역시 상식이었을 텐데, 왜 믿음은 그 뒤 여러 장에서 강조했나?”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대표적인 이단인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변증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기초적인 교리지만 그 뒤 계속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 **(4) 놀랍게도 성경에는 더 많은 구원의 조건들이 나온다.**

##### **1)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리한 지적**

그는 「기독교 중심」에서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수반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칭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믿음 하나가 칭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눈이 열리는 것도(행 26:18), 가난한 마음도(마 5:3), 회개도(행 26:20),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들도(눅 14:25-33),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마 6:14-15, 18:35) 칭의의 조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 **2) 은혜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 구원의 조건들**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절대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와 그 외 구원의 조건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 중에 믿음처럼 공로와 전혀 무관한 다른 조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칭의의 공로적인 근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칭의의 공로적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즉 공홀히 여기심입니다(요 3:16, 딤후 3:4-7). 둘째, 예수님의 희생 즉 대속의 죽음과 보혈공로입니다(롬 3:24, 갈 2:21). 여기에 사람이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편, 로마서가 다루는 율법주의든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유대주의든, 이단들은 칭의의 공로적인 근거를 부정하거나 무언가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된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를 강조하다가 구원의 조건을 ‘오직 믿음’ 으로 줄이고 은혜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까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믿음을 강조해도 이단이 아닌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이 지정한 수단이고 공로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 외에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공로와 무관한 조건들(회개, 심령의 가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용서 등)이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장해도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이것들을 강조해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믿음처럼 은혜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저자들이 오직 율법의 행위를 상대로만 은혜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행 15:10-11, 롬 3:20-24, 갈 5:4-6, 딤후 1:9 등). 바울이 율법 행위를 열렬히 반대했던 이유는 그것이 은혜를 훼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믿음을 매우 강조했던 이유는 믿음이 은혜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처럼 다른 구원의 조건들도 은혜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중 하나라도 무시하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그것들을 가르치고 강조해야 합니다.

### 3) 설교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

교회 안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영적인 다중인격자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존 스토틀는 믿음, 구원, 혹은 거듭남을 다룬 것을 보면, 절대 구원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의 기본진리」 라는 책에서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교회들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심판이라는 것까지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강해한 것을 보면, 칭의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공로를 믿고 의

지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도,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존 스토틀뿐 아니라 오직 믿음을 맹신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기이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들은 칭의에 대해 설교할 때는 믿음 외에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회개에 대한 구절을 설교할 때는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또,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한 구절을 설교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행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설교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참 복음과 진리를 옹계 깨달을 수 없어서, 믿는다고 하나 심령이 가난하지도, 죄를 회개하지도(자백은 하지만),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도,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속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직 믿음을 폐기처분하고 회개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조건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십시오. 그래서 참 신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참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나눔과 적용

성경에 의하면 눈이 열리는 것도, 가난한 마음도, 회개도,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도, 용서하는 것도 칭의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도 중요하게 여기는지 돌아보고, 참 신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참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할 것을 나누어봅시다.